‘너’들 주머니인 ‘나’의 거듭남

(마가복음 10:29~31)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30.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1.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너’들 주머니인 ‘나’의 거듭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너’들 주머니인 ‘나’의 거듭남
‘나’라고 할 때의 나는 바로 ‘너’들의 주머니입니다. 이 주머니가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미군부대에 있을 때에 경험한 일입니다. 미군부대에서는 독립기념일 같은 명절이 되면 대대적인 파티가 열립니다. 제가 육군의 헬리콥터 비행부대에 있었을 때에 큰 행사가 열리게 되어서, 이를 위해 공수특전단에 속하는 스카이다이버를 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간 후에 파티가 열리는 장소 한 가운데로 착지하게 하였습니다. 착지할 장소에 지름 2미터 정도의 원을 그려놓고 까마득히 높이 올라간 후에 스카이다이빙을 한 뒤에 낙하산을 펼치고 원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스카이다이버를 착지할 원 옆에 세워놓고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스카이다이버가 착륙지점을 가리키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너무 작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떱니다. 이 말에 대중들은 웃으면서도 집중하게 됩니다. 헬리콥터가 이륙하자 하던 일을 멈추고 스카이다이버가 언제 내려오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이다이빙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과 함께 음악도 멈추고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까만 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낙하산이 확 펼쳐지더니 쇼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종횡무진하면서 발밑에서는 빨갛고 하얀 연기를 뿜어댑니다. 그러더니 그려놓은 2m 원안으로 정확하게 착지하였습니다.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착지에 성공한 스카이다이버의 자신감에 가득 찬 표정은 보는 관중들마저도 신나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신나고 재미있고 멋진 일이 있는데 바로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통한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마치 스카이다이빙과 같습니다. 스카이다이버는 땅에서 전후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마치 거듭남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제까지 성경공부 하면서 배웠던 거듭남에 대한 교리는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종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신앙인은 매일 스카이다이버로 살아야 합니다. 또 이 모습은 마치 컴퓨터를 리부팅 하는 모습과도 닮았습니다. 컴퓨터가 잘 안 될 때에는 껐다 켜면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잘못 될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실수하고 그릇됨을 범하지만 계속해서 거듭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이 스카이다이버 같다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스카이다이버는 땅에 있는 원을 표적으로 삼아 착지합니다. 이럴 때에 한 발 옮겨 놓으면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카이다이버가 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높이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표적에 착지할 때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대화할 때에 아무 과정 없이 서로를 관계하는 것은 스카이다이버가 땅에서 한 발자국 옮겨 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카이다이버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스카이다이버처럼 될 때에 배우자와의 대화가 재미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에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녀를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이라고 하셨습니다. 헬라어 사본을 보면 아내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남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마음에서 세상을 버린 자만이 스카이다이버처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느 한 순간 거듭나면 이 거듭남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거듭남을 일회적인 사건으로 오해해왔습니다. 내 안에 배우자가 있다면 동그란 원입니다. 이 안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은 배우자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후에 다시 땅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로 보내지는 삶은 정말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스카이다이버가 하늘에서 내려와 정해놓은 원 안에 완벽한 착지를 했을 때 활짝 웃는 것처럼 거듭난 자들의 삶은 기쁘고 만족합니

다.
모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돈을 향해 달려가서는 안 되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이라고 해서 거리낌 없이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스카이다이버처럼 먼저 돈에 대해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는 것입니다. 집과 전토는 재산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정박된 배를 거루 줄로 붙잡아매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다시 풀어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마음은 다시 땅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돈 문제, 배우자, 자녀, 사업이라는 착지점을 향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스카이다이빙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거듭남을 되풀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태어남이 되풀이 되지 않으면 그 삶은 당연히 거듭난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5절에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에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거듭나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거듭남은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라는 말은 곧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습니까?”라는 말입니다. 또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라는 말은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자로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분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5~38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거듭난 자의 삶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6~27절에서도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거듭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거듭남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앞서 보았던 말씀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은 비신자가 여러분께 와서 니고데모의 말처럼 “거듭남이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바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마음에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마음에서 버림이 매순간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거듭났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듭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상태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림으로써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재산, 내 형제자매, 내 집이 우리 안에 포함되

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살자고 예수를 믿는 것인데 왜 자꾸 버리라고 합니까?'라고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의미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거듭나야만 하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이해해보기로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듭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종의 주식회사 같은 존재입니다.
주식회사는 대소주주들이 주식을 사며 출자한 돈을 통해 경영이 이루어집니다.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주주들은 출자한 자본의 비율만큼 수익을 배당받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식회사처럼 수많은 '너'들을 통해 형성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배우자나 자녀는 대주주입니다. 마음의 배당금을 크게 지불하는 존재들입니다. 큰 배당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을 많이 쓰고 신경을 쓴다는 뜻입니다. 한편 10년 동안 연락이 없었던 중학교 동창은 마음에서 아주 작은 소액 주주입니다. 나와 아예 무관하지는 않지만 마음을 거의 안 써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너'가 모여서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는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마다 젖을 물려주는 사람이 첫 번째 '너'가 됩니다. 그 너를 엄마로 인식하고 자녀로써의 의식을 갖게 됩니다. 또 그렇게 아빠를 두 번째 너로 인식합니다. 이후로는 순차적으로 다른 너로써 형제자매를 인식합니다. 나보다 큰 형제자매가 있으면 나는 동생이 되고, 나보다 작은 형제자매가 생기면 형이나 누나가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너를 인식함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 이유는 너의 자리에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장으로써 스스로를 인식하는 이유는 너의 자리에 회사와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사람은 위로는 부장을 인식하고 아래로는 계장을 인식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의식 속에 수많은 '너'들의 자리가 있는데 이들 중에는 대주주가 있고 소주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여되어 있는 이 모든 '너'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 수많은 '너'들을 끌어안고 있는 '나'라는 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표현합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나라 등의 '우리'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우리로 묶인 관계는 거듭나기 전의 상태입니다.

사실 거듭남이란 이미 생활에서 복음을 만나기 전부터 계속 경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근 40여년 만에 학교 다닐 때에 같이 교회를 다녔던 후배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배의 외아들이 결혼을 했고 손녀가 태어나서 10개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손녀가 얼마나 예쁜지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아들을 키울 때에도 이 정도로 기쁘지는 않았는데 손

녀는 예뻐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보다 체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실은 다섯 사람이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가 기존의 의식에서 벗어나 아빠와 엄마로 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 후배 부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로써 새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던 너의 입장에 엄마와 아빠가 생겨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생기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의식해가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써 어떤 회사에 취직하게 된 취업준비생의 모습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는 취업준비생이었으나 이제 그 의식에 대해서 죽고 한 회사의 직장인으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를 형성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 변화 없이 이제까지의 의식을 유지한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지라도 거듭남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있는 수많은 '너'들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실제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여되어 있는 '너'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너'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첫 번째 너로 해서 태어난 내가 바로 거듭난 나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 나로써의 의식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를 두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집을 너의 위치에 둔 사람은 집 주인으로써의 의식을 가집니다. 가족을 너의 위치에 둔 사람은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의식을 가집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 너의 자리에 모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된 '너'들의 자리에 담긴 대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들로 생겨난 모든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어서 아버지 된 것에 대해 죽는 것이고, 배우자가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해야 될 일을 물었기에 예수님께서도 일로써 대답하십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율법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든 전토든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스카이다이버가 착지점을 바로 옆에 놔두고도 하늘로 올라가듯이, 그렇게 내 재산을 놔두고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라는 의식을 이루게 하는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곧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너’들의 위치에 수많은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로 인해 생겨난 ‘나’라는 의식에 대해서 죽으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육체를 통해 만난 것들이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은 대주주가 되고 또 어떤 것들은 소주주가 됩니다. 이것들을 버리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진 ‘나’라는 의식만 죽이면 됩니다.
자식을 버린다고 해서 어디 시골에 내다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 바닷가에 가면 주인 없는 강아지들이 돌아다니는 것이 자주 눈에 띕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물이든 재산이든 인간관계든 관계는 그대로 놔두고, 대신 관계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 됨을 죽이고, 남편 됨을 죽이고, 아들 됨을 죽이고, 딸 됨을 죽이고, 과장님 됨을 죽이고, 목사 됨을 죽이고, 교인됨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기에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가 백배로 되리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온전한 관계를 이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너’들의 자리에 있는 것들을 통해 만들어진 나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여기면 우리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땅의 착지점을 향해 보냄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에게로 자녀에게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신나는 삶이 시작됩니다.
어제 배우자를 대할 때에 스카이다이빙을 했다면 오늘도 스카이다이빙은 이루어져야합니다.

나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체의 관계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곧바로 개입하려고 할 때에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먼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후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냄을 받는 삶이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지속되고 반복되어야 하는 라이프스타일입니다. 믿음이 지속되어야하고 반복되어야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적용하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다른 운전자로 인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라도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10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은 약 2만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GPS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먼 위성과 소통하는데 시간은 거의 소비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비게이션이 생활화되어서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거듭남은 이처럼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거듭나면 백배나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전에 한 집사님과 상담한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이 분이 처음에 말씀을 잇지를 못하시고 격하게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겨우 달래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다음과 같습니다. 명문대에 다니는 딸이 병원에 실려 왔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도착해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딸이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데 하얀 시트는 피로 범벅이 되어있고, 그 아래에 양동이에는 피가 고여 있었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딸이 길을 가다가 하혈을 하면서 쓰러졌는데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였지만 집사님을 정말 놀라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딸이 집과 학교와 교회 밖에는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알고 있는 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딸의 이름이 영희라면 엄마는 영이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테이션 공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훈아 씨를 흉내 내는 너훈아 씨, 심수봉 씨 대신에 삼수봉 씨가 공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목소리인 사람이 비슷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공연을 합니다. 이것이 가짜인 것을 알기에 더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혀 재미있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담은 자녀는 실제 자녀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배우자는 배우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홍길동이라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정말로 태승철을 남편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태승철이라는 사람의 일부를 남편으로 삼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아도 이미테이션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뿐 정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말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외국에 나가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외국에 나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딸이 뉴욕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딸이 뉴욕에 있습니까? 진짜 딸은 뉴욕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매일 밥은 잘 먹고 있냐며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딸은 끼니를 거르는 생활을 하면서도 대답은 잘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대답을 듣고 다소나마 안도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부모는 진짜 자녀와 통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아서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는 너로서의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부모, 직장동료, 친구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실재의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미테이션 왕국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말 한 마디를 해도 진짜와 하고, 한 번을 만나도 진짜와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가 끊어져야 합니다. 나를 형성하게 하는 '너'들의 자리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 끊어지지 않으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마음이야 말로 비로소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과도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백배나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진짜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보여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 언제나 평강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스카이다이버처럼 먼저 하늘로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업이 망한 남편의 아내라는 의식에 대해 죽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남편을 대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편을 너의 자리에 둔 상태에서는 나와 남편이 묶인 상태입니다. 남편의 사업이 안 되면 나도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둔 상태라면 하나님과 묶인 상태가 되어서 창조주의 딸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로 다시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묶이면 남편의 상황이 어떻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평안을 남편에게도 전할 수 있습니다.
태풍으로 배가 조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물에서 발버둥치고 있는데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몸을 헬리콥터에 묶고 뛰어내려서 사람들을 구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환경적으로 보자면 물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구조대원이나 빠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리콥터에 밧줄을 맨 구조대원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 또한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하므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현장에서도 마음을 하늘로 보내고 있었기에,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모든 관계가 평강의 관계로 변합니다. 구조대원으로써 물에 빠진 자들을 구조하는 관계가 됩니다. 진짜 모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참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백배를 얻는 거듭남의 생활입니다. 거듭난 자는 스카이다이버입니다. 표적이 옆에 있다고 해서 그리로 발을 옮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이러한 거듭난 자들에 대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의 예처럼 어떤 사람이 자신은 부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부자인 '나'라는 의식은 없어지게 됩니다. 혹은 배우자와 사별해서 혼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나 아내로써의 의식은 없어지게 됩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사람이 자녀로써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로써의 의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이 주는 의식은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에만 유지됩니다. 나인 성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을 때에 더는 엄마로써의 의식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체가 죽고 나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나를 형성하는 것이 육체로 만나던 '너'들의 자리에 있던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장이었던 사람이 회사가 망하고 나면 더는 사장으로써의 의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로 만나는 것들로만 나의 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떨까요? 천국과 지옥을 앞에 두고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나'라는 의식밖에 남지 않고 결국 지옥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신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너의 자리에 모시게 된 사람은 보냄을 받은 삶을 살게 됩니다.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거듭남의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모신 하나님은 죽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의 주인으로서 존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나를 잃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십자가에서 육체로 규정된 나를 죽이는 자들입니다. 또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의식을 가진 자들은 육체의 생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너로 해서 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죽여야 그 하나님 때문에 생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습니까?

이를 두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장님이 있다면 마음에서 가장 큰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사업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업이 망하면 어떨까요? '나'라는 의식 중에서 가장 귀중한 사장이라는 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잃었으니 더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를 규정하는 너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회사, 우리나라 등을 앞세워 기도하십니까? 이 '우리'라는 말이 육체로 만나는 존재들과 묶여있습니까? '나'라는 의식의 대주주가 되어버린 '너'들을 '우리'라는 말로써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보냄을 받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을 뿐이고 전혀 거듭나지 않은 원죄의 상태를 유지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거듭남은 재미있고 신나는 삶입니다. 결코 육체로 만나는 세상을 너의 자리에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거듭났어도 오늘 거듭남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벌써 '나'라는 의식의 주머니에는 '너'들의 자리에 육체로 만나는 것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거듭난 자가 우리로 묶여야하는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뿐입니다. 우리라는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존재일지라도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일지라도 심지어 내 몸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너'들의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관계도 가장 온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백배나 나아져서 더 이상 내가 바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해질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다르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박해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거듭난 자는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능숙한 스카이다이버가 하늘 높이 올라간 후에 몸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맨 몸으로 허공을 가르다가 적당한 곳에서 낙하산을 확 펼치고 연기를 뿜으면서 활공한 뒤에는 정확하게 착지합니다. 그 얼굴은 자신감에 넘치는 밝은 표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배우자 앞에서부터 거듭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마음 속 ‘너’들의 자리에 남편을 넣은 것에 대해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내 집과 내 가업을 마음의 ‘너’들의 자리에 담았던 것에 대해 죽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자녀를 보면서 곧바로 개입하고도 싶지만 먼저 자녀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너’들의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규정된 나의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기뻐할 때에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습니다. 평강을 가진 구조대원이 되어서 세상과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삶은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들로 채워져 있던 ‘나’라는 마음의 주머니는 끝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가 이 땅에서 육체로 만나는 대상들을 향해 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될 정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능숙한 스카이다이버처럼 이 세상을 신나고 멋지고 재미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을 인정함을 지속하게 해주셔서 스카이다이버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온전한 거듭남의 삶이 현실이 되는 축복 중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